

# 김만수의 어려운 것을 정해주는 남자

□구성/김만수 七단

## 초반의 원리

본격적인 어정남 강좌에 들어가기 앞서, 이번호에선 초반의 원리를 알아보며 워밍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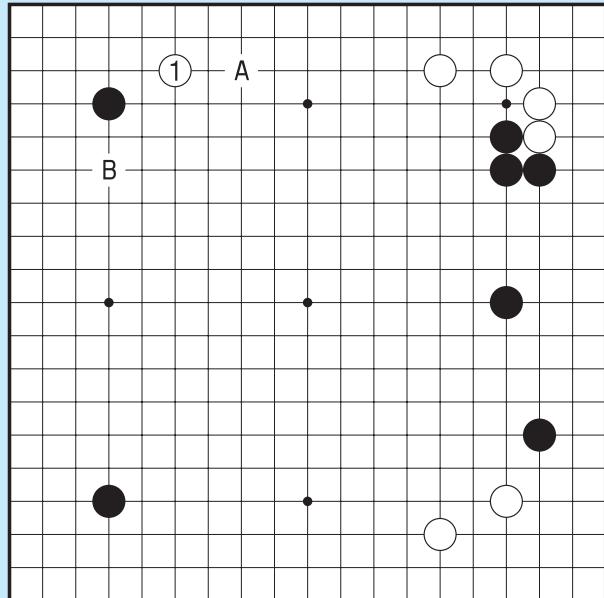
바둑을 시작하면 누구나 귀 4곳에 착점을 합니다. 귀가 모두 두어지면 바로 걸침이 시작되는데요, 상대가 걸쳐오면 굳힘과 협공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둑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정석 선택의 어려움, 저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리1-넓은 쪽을 선택하라

상대가 걸쳐 오면, 굳힘과 협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 협공해야 하고 언제 굳혀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한 가지 정석만 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문제 풀이를 통해 정석 선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백1로 걸친 장면입니다. 혹은 A와 B 중 어떤 정석 선택이 최선일까요?

## 1도(넓이가 선택의 기준)

한 판의 바둑을 통해 수없이 많은 선택을하게 됩니다. 초보자일 때는 수의 성립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즉, 수가 성립하면 좋은 수고, 성립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수가 됩니다. 그러나 중·고급자가 되면 수의 성립 여부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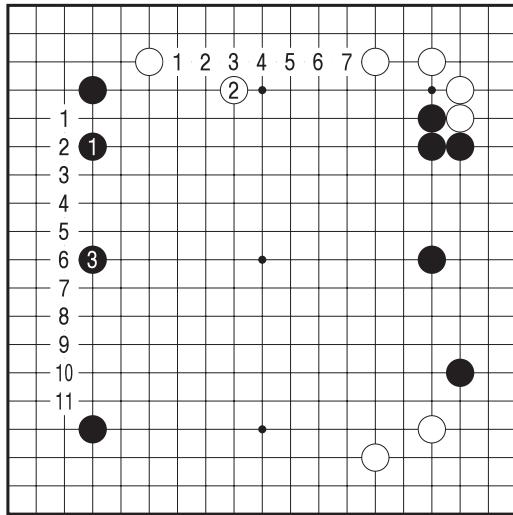


수의 가치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끝내기에서는 수의 가치를 바로 집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중반에서는 일일이 계산을 하기 어렵죠. 따라서 초·중반에 착점을 할 때, 수의 가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넓이'입니다. 1도를 보시면, 상변은 7칸인 반면, 좌변은 11칸 이므로 좌변이 더 넓습니다. 넓은 곳을 선택하면 발전성이 풍부해져 유리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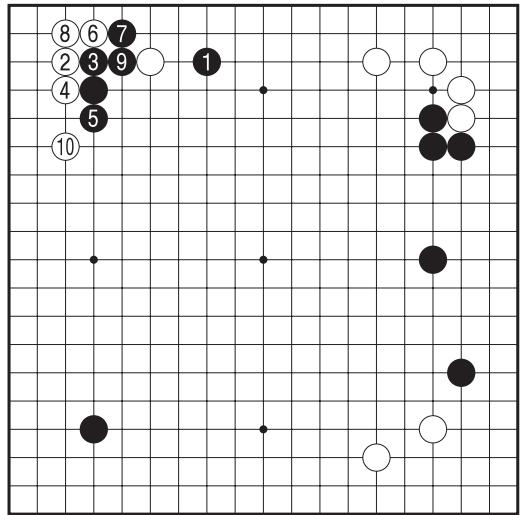
## 2도(좁은 곳은 발전성이 적다)

흑1의 정석 선택은 부분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정석 선택입니다. 그러나 판 전체를 살펴

바둑을 두다보면 매번 머리가 지끈거리는 어려운 장면이나 애매한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고 세 번 당해도 알쏭달쏭한 어려운 장면들, 어정남 김만수가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1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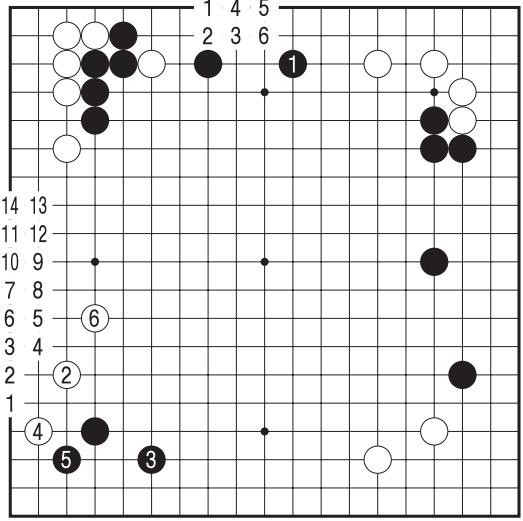


2도

보면, 상변 흑 모양은 우상귀 백돌로 인해 이후의 확장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돌의 발전성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를 3도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3도(집이 늘어나지 않는다)

흑1에 벌려도 6집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칩니다. 게다가 흑1을 둔 다음에는 더 이상 벌릴 곳이 없습니다. 즉, 상변 흑의 발전성은 6집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좌변은 공간이 넓어 백2에 먼저 두면 꽤 많은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발전성은 반상에 놓여지는 돌의 존재 이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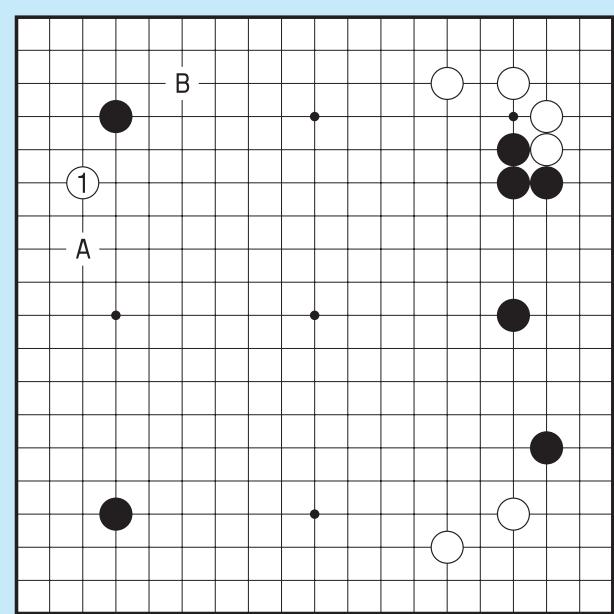
3도

### 원리2-발전성을 중요시해라!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지요.  
이번에는 반대로 백1로 걸쳐온 장면입니다. 혹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 1도(좁은 곳은 발전성 부족)

바둑을 배운 다음, 맨처음 배우는 정석이 혹은 지침입니다. 혹은 가장 안정적이어서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석이라도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1도처럼 공간이 좁으면 혹은 능률이 떨어지는 수가 됩니다. 기량이 낮으신 분들의 바둑을 보면, 매번 쓰는 정석만 사용합니다. 혹은 반복 사용의 함정에 빠진 수입니다.



#### 2도(공간을 지배하면 승리가 보인다)

상대가 날일자로 걸쳐오면, 어느 쪽이 더 넓은지를 꼭 살펴보기 바랍니다. 넓은 쪽을 선택하면 거의 대부분 옳은 선택입니다. 혹은 11까지 혹은 좌변에 큰 모양을 만들며 대세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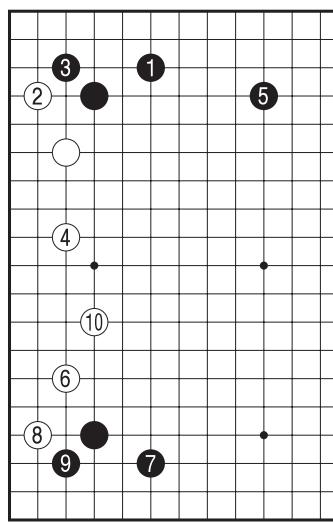
한 이해가 높기 때문입니다

#### 3도(고수일수록 발전성을 중요하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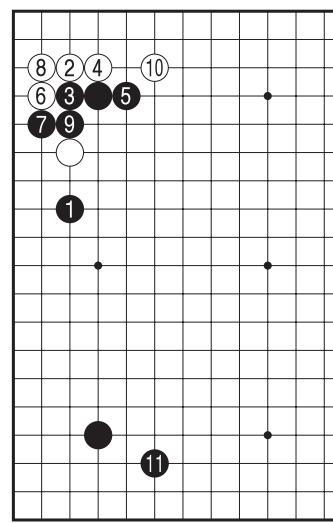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서로 공평하게 번갈아 한수씩 차점합니다. 따라서 같은 한수를 두더라도 좀 더 능률적인 수를 두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본보 진행에서 보면, 혹은 집을 얻는 수만 두고, 백은 모양을 확장하는 수만 두었습니다. 혹은 한쪽 모양에만 갇혀서 당장 집은 커도, 더 이상 큰 모양으로 발전하지 않지만, 백은 나머지 전체를 차지했지요. 고수일수록 눈앞에 보이는 집보다 모양을 선호하는 것은 발전성에 대

#### 4도(아마추어 실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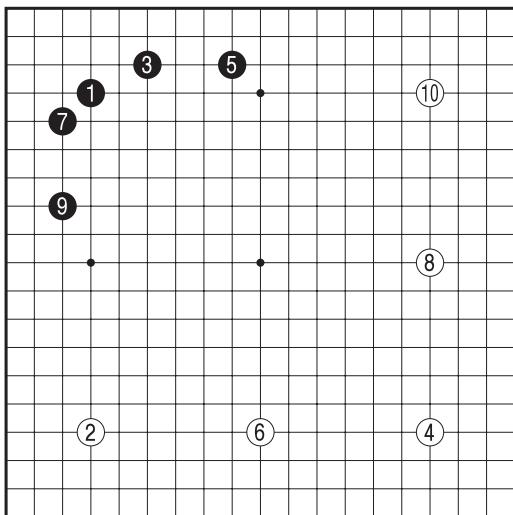
아마추어 여러분의 실전보를 살펴 보면, 좀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혹은 5급 정도의 기량이고, 백은 5급의 기력을 가진 분의 기보입니다. 보다시피 혹은 돌은 다닥다닥 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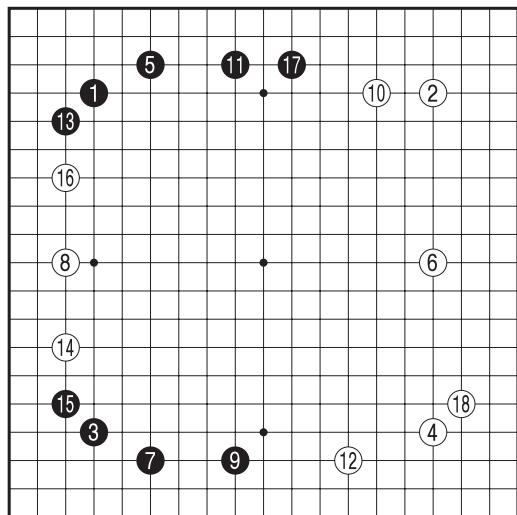
1도



2도



3도



4도

어 있어 이후 집을 더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백은 우변에 놓여진 6개의 돌만으로도 흑의 모든 집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수의 가치는 눈앞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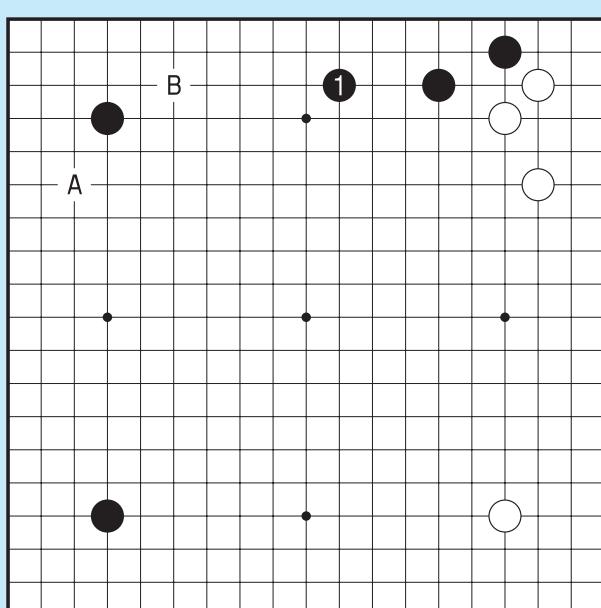
이 아니라 발전성에 있습니다. 초·중반은 집으로 계산이 안되므로 공간, 즉 넓이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정석을 선택할 때, 넓은 쪽을 기준으로 정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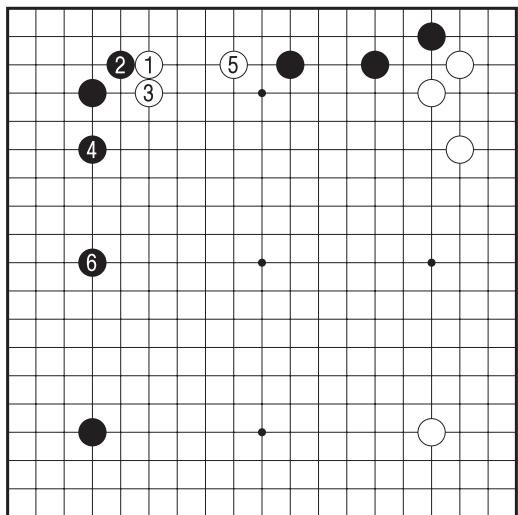
### 원리3-넓은 쪽에서 걸쳐가라

걸쳤을 때 어떻게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걸침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화점은 소목과 달리 두 군데에서 걸칠 수 있어 올바른 방향 선택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바둑을 둘 때 어느 쪽으로 걸쳐가야 할지 알쏭달쏭한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추어 여러분의 대국에서는 화점이 많이 사용되므로 걸침의 방향만 잘 잡아도 훌륭한 포석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풀이를 통해 방향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해 볼까요? 흑1로 별린 장면입니다. 백은 A와 B중에서 걸침의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정수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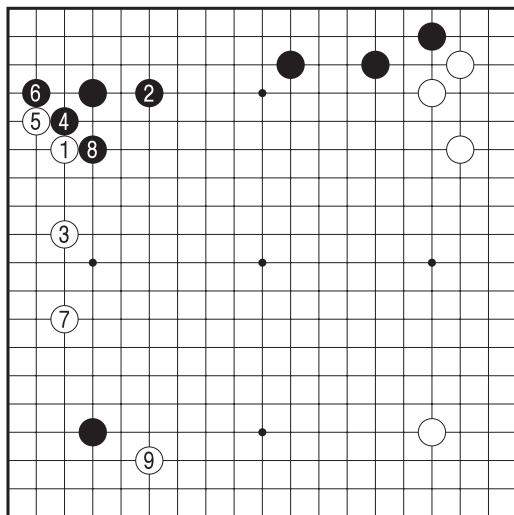


1도

### 1도(좁은 곳 걸침은 위험하다)

걸칠 때도, 항상 넓이가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상대 모양이 있을 때, 좁은 곳으로 걸쳐가면 걸쳐간 돌이 곤마가 되므로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백1은 여러분이 많이 쓰는 수법이지만 흑2·4의 공격을 당해 곤마가 됩니다. 또, 흑6을 뺏기 면 좌변의 넓은 공간을 뺏겨 실리로도 손해입니다. 넓은 곳 선택은 모든 착점의 기준이 됩니다.



2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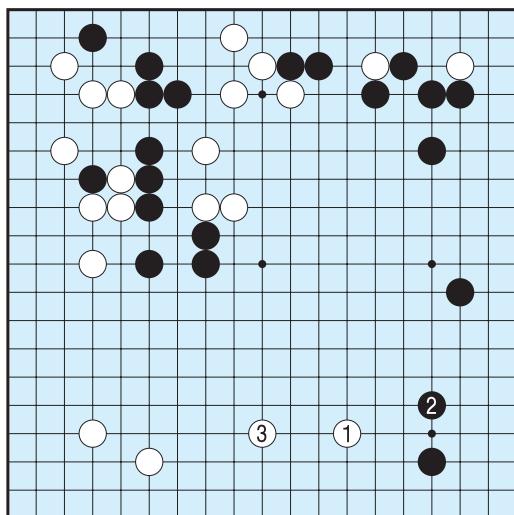
### 2도(넓은 쪽으로 걸쳐야 여유있게 판을 짠다)

공간이 넓은 쪽으로 걸쳐야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백3, 7의 선택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부분적으로는 손해지만 좁은 공간을 상대에게 내주는 대신, 백9에 두어 하변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초반의 모든 착점은 되도록 선수를 뽑아 넓은 곳을 차지하는 수가 많이 두어집니다.

### 프로 실전례

2011 스포츠어코드 바둑대회 백: 박정환 흑: 씨에허

소목은 걸치는 방향이 한쪽이어서 걸침 방향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프로들은 공간 확보를 위해 소목에서조차 백1과 같은 역걸침을 간혹 사용합니다. 부분적으로 백1은 흑2와 교환되어 손해지만 역시 하변의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위한 고심의 한수입니다.



프로 실전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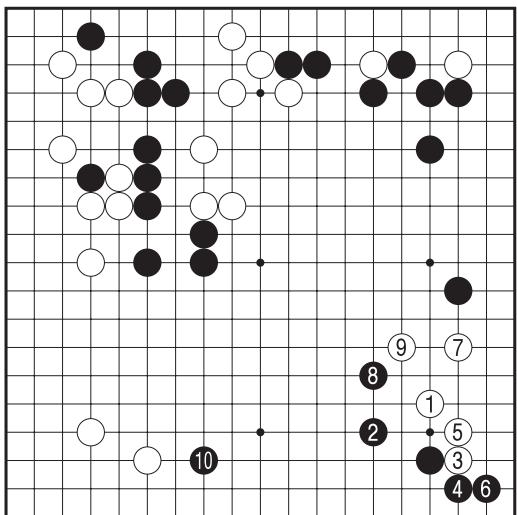
### 1도(좁은 쪽에서의 걸침은 능률이 떨어진다)

백1이 모양상으로는 옳은 걸침이지만 우측의 공간이 좁아 능률이 떨어집니다. 백 모양은 중복인 반면 흑은 10으로 넓게 모양을 확장할 수 있어 만족인 모습입니다.

오늘은 본 강좌에 들어가기 앞서 올바른 방향선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바른 방향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수의 가치 때문이고, 수의 가치는 발전성으로 판가름됩니다.

걸침 혹은 걸침 이후의 정석 선택에서 넓이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어렵지 않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의 어려움은 대부분 포석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포석의 원리만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드는 어려움에



1도

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예고편 흑 모양 한가운데 풍덩 뛰어든 백, 어떻게 요리해야 할까?

이번 호는 워밍업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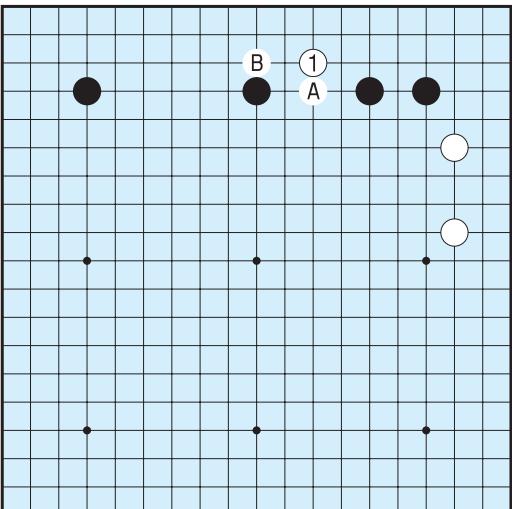
다음 호부터 본격적으로 아마추어 여러분이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해도 어려운 장면을 선정하여 어정남이 제대로 정답을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예고편 들어갑니다. 문제의 장면을 당해본 적 없는 바둑 팬은 없겠죠? 당해본 적 없으면 바둑 팬 아닙니다~ 「바둑첫걸음」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

이 모양 만날 당해도 어렵습니다. A로 붙이자니 집이 몽땅 깨질 것 같고, B로 지키자니 백이 중앙으로 뛰어나가면 거꾸로 내 돌이 곤마가 될 것만 같죠. 참 골치 아픕니다.

자~ 다음 호에서 이 모양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정남이 확실하게 정해드립니다! 이번 호에선 안 나옵니다~ 궁금하면 다음 호 보세요~



문제의 장면